

복음주의와 신학의 방향

전성용 (서울신대 교수)

필자는 이 글에서 첫째로 복음주의가 무엇인지 고찰한 다음, 둘째로 복음주의가 현대신학의 흐름에서 차지하는 위치를 살펴 보고, 마지막으로 복음주의 신학이 지향해야 할 방향 내지는 미래 가능성에 관하여 논술하고자 한다.

1. 복음주의란 무엇인가?

문자적으로 복음주의란 성서의 복음을 지상의 가치로 간주하고 교회와 신학의 내용과 방향이 복음을 지향하는 것으로 만들고자 하는 노력 내지는 관심이라고 말할 수 있다. 닥트(C. H. Dodd)에 의하면 복음은 초대교회의 케리그마에 포함되어 있는데 예수의 생애와 죽음과 부활에 의해 약속된 시대가 도래하였고 성령이 강림하였으며 그리스도께서 심판주로서 재림하실 것이며 회개와 믿음으로 구원의 확신과 성령의 은사가 주어진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복음주의라는 용어는 대단히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복음주의라는 개념이 어떤 의미로 사용되었는가를 항상 조심스럽게 관찰하고 혼돈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복음주의라는 말의 뜻을 크게 셋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첫째로, 독일의 개신교회 전체 내지는 독일 개신교회 신학을 가리키는 말로써 특히 루터파를 가리킨다

(Evangelische Kirche). 이들은 종교개혁의 정신을 따라 성서적인 복음을 지향하는 신학적 노선을 추구하고 있다. 그러나 독일교회와 신학이 성서적이고 복음적인가에 대해서는 심각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독일 개신교회의 신학을 복음주의와 동일시 하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둘째로, 미국에서는 근본주의가 자체분열로 말미암아 쇠퇴할 때 보수적인 진영에서 근본주의를 극복하기 위하여 복음주의운동을 일으켰으며 1942년에는 전국 복음주의 연합회(National Association of Evangelicals)를 결성하였다. 미국의 복음주의자들은 신학적으로 근본주의의 연장선상에 있으면서 자유주의와 대결하는 양상을 띠고 있다.

셋째로, 보다 포괄적이고 다양한 신학적 목소리들을 포용하면서도 전통적이고 보수적인 복음운동을 일컫는 용법이다. 기독교 대한 성결교회 헌법에서 “기독교 대한 성결교회에서 믿는 교리와 신조는 기독교 개신교파가 공통으로 믿는 복음주의이니 이는 신앙의 생명이며 골자이다”라고 하였는데 이것은 너무 지나치게 표현이 간소화되어 우리의 입장을 좀 더 상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지만 어쨌든 종교개혁의 정신과 특별히 요한 웨슬레 복음운동의 전통을 따라 성서의 복음을 지키고자 하는 입장을 나타내 주고 있다. 로버트 웨버는 (복음주의란 무엇인가?, 생명의 말씀사 p. 38.) 현대의 복음주의의 유형을 14가지로 분류하여 소개하고 있는데 이 분류에 따르면 기독교 대한 성결교회는 웨슬레파 복음주의와 성결파 복음주의의 혼합체라고 볼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복음주의를 단 하나의 언어로써 규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 글은 복음주의 자체를 규명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는 복음주의의 다양한 입장들을 소개하는 것으로 그치고 편의상 복음주의를 필자 나름대로 정의한다면, 전통적인 개신교 신학의 종교개혁 정신을 추구하면서 자유주의신학을 거부하고 성서적인 복음을 지향하고자 하는 신학과 교회의 운동과 주장이라고 할 수 있다.

2. 현대신학의 흐름

복음주의가 나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기 전에 현대신학의 흐름을 살펴 보고 거기에서 복음주의의 위치를 파악하고자 한다. 현대신학의 흐름은 크게 세 갈래로 나누어져 있는데, 첫째로 19세기에 독일에서 시작되어 20세기에 미국에서 꽃을

피운 자유주의 신학과 자유주의 신학에 반대하여 일어난 미국의 근본주의 및 구라파의 신정통주의가 그것이다. 따라서 현대신학은 자유주의 신학과 이에 반대하는 반 자유주의 신학 사이의 대결의 양상을 보이고 있다.

첫째로, 자유주의 신학은 슐라이에르마허로부터 시작되어 리츨, 트릴취, 하르낙 등으로 계승 발전되었으며 미국으로 건너가서 라우센부쉬의 사회복음(Social Gospel)으로 전개되었다. 자유주의신학의 특징은 한 마디로 말해서 '인간 중심주의'라고 할 수 있다. 그들은 하나님의 내재성을 강조하는 대신 하나님의 초월성을 부인하였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선재성과 동정녀 탄생, 부활, 승천, 재림 등을 포기하고 기적을 부인하였다. 예수는 위대한 도덕적 스승이요, 인간이 닮아가야 할 원형(Archetype)으로 보았으며 현대과학과 기적은 양립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인간이 이성을 근거로 한 합리주의 위에 세운 자유주의 신학은 인간중심주의고 비 성서적인 신학으로써 복음의 우월성을 파괴하였다. 그러나 그대신 그들은 교회의 사회적이고 윤리적인 책임을 강조하였으며 역사적인 현실의 개선과 변혁을 위해서 헌신함으로써 사회·정치적인 발전에 기여한 점은 부인할 수 없다.

교단 총회본부에서는 금년도 여름성경학교 교재의 내용중 일부가 우리와 신학적인 입장이 다른 것으로 규정하여 해명한 바 있거니와 필자의 견해에 의하면 금년도 여름성경학교 교재의 문제점은 단지 몇마디의 표현상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복음의 핵심을 상실하였다고 하는 점이라고 본다. 여름성경학교 교재에 의하면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이 고통받고 있는데 우리가 이 세상을 잘 가꾸고 보호해야 된다고 되어있다. 여기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총은 거의 배제되었으며 자연의 회복도 인간이 할 수 있다는 논리이다.

둘째로, 근본주의는 19세기 말에 미국에서 일어난 반 자유주의 운동인데 1895년에 그들은 5가지의 근본신조를 발표하였다. 이들은 성서가 한 자 한 자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 쓰여졌기 때문에 오류가 있을 수 없다고 하는 기계적 축자영감설을 주장함으로써 엄청난 논쟁을 불러 일으켰다. 그리고 그들은 부정적인 윤리관을 가지고서 자기들과 함께 하지않는 자들과는 상종하지 않음으로써 끝없는 분열을 계속하다가 자멸의 길을 걷고 말았다.

이러한 근본주의의 독단주의를 극복하기 위하여 복음주의 운동이 일어났는데 미국의 복음주의자들은 1942년에 복음주의 연합회를 결성하고 1947년에는 Fuller 신학교를 설립하고, 1956년에는 'Christianity Today' 라는 잡지를 창간

하였다.

복음주의의 특징은 ①사회적인 관심을 가지고 ②솔직한 대화를 환영하며 ③근본주의의 반 지성적 반 과학적 태도를 극복하고 ④적극적으로 선교지향적이며 ⑤그러나 신학적 입장은 여전히 근본주의를 지지한다는 것이다. 빌리 그래함, 칼 헨리, Fuller신학교 등으로 대표되는 온건한 복음주의는 미국에서 보수적인 진영의 지지를 받아 적극적으로 세계 복음화와 선교운동을 지원하고 있다.

셋째로, 구라파에서 일어난 반 자유주의 운동인 신정통주의는 칼 바르트, 루돌프 볼트만, 에밀 브룬너, 라인홀드 니이버 등이 여기에 속한다. 그러나 바르트 자신조차도 볼트만을 자유주의자라고 할 정도로 신정통주의 내에서도 대립과 분열이 계속되었다.

바르트는 성서 안에서 하나님의 새로운 세계를 발견하고 자유주의 신학이 던지고 있는 합리주의 철학을 버렸다. 그는 인간이 철저히 죄인이며 하나님과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단절 분리되었음을 주장하였다. 즉 하나님의 초월성과 타자성을 강조하였다. 그러므로 인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구원의 길은 오직 하나님께서 인간을 찾아 오시는 길 밖에 없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시이다. 이 하나님의 계시의 결정적인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이다. 이와 같이 바르트는 자유주의의 인간 중심주의를 하나님 중심주의로 역전시키고 하나님의 초월성과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확보하였으며 인간의 전적 타락을 주장함으로써 종교개혁의 정신으로 돌아가고자 하였다.

신정통주의 신학은 성서무오설 이외에는 대체로 복음주의와 일치하며 오늘날 미국의 복음주의 운동이 대표적 기관인 Fuller 신학교에서도 바르트의 입장을 거의 수용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신정통주의 신학은 복음주의 신학의 발전을 위해서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다고 본다.

3. 복음주의 신학의 미래

이제 10년 후에는 21세기를 맞이하게 된다. 문명의 급속한 발전과 인간의 삶의 조건의 변혁은 교회의 관심과 선포의 다양한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교회는 이러한 변화에 신속하고 적합하게 대응해 나가야 한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성서적인 복음을 벗어날 때 그것은 결코 진정한 기독교 신학이나 신앙이 될 수 없다. 필자는 복음주의적 입장에서 신학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로, 복음주의는 계속해서 비성서적, 반 복음적인 신학적 동향들을 경계하고 복음의 파수꾼으로서 전투적 사명을 다 해야 한다. 성서적 복음은 순교자적인 자세로써 복음주의 신앙운동이 지켜야 할 보루이기 때문이다.

둘째로, 독창적인 신학체계 수립을 지향해야 한다. 복음주의 진영에서는 지금까지 복음선교운동이 우선시 되었기 때문에 신학이 없다는 비판을 들어 왔다. 물론 2,000년 간 서양의 신학적 전통이 없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새로운 시대에는 새로운 신학이 요청되고 있다. 20세기는 성령운동의 시대이다. 1907년에 미국에서 오순절운동이 일어났으며 한국에서도 1907년에 평양에서 대부흥운동이 일어났다(이 해는 한국에서 성결교회가 시작된 해이기도 하다). 그리고 삼위일체론적으로 볼 때 구약시대를 성부시대, 신약시대를 성자시대, 교회시대를 성령시대라고 구분할 수 있다면 성령시대에는 당연히 성령중심의 성령신학이 수립되어야 한다. 오늘날 한국교회 내에서도 성령운동을 오해하여 성령의 은사를 무의식적 혼수상태나 신경질적인 행동으로 매도하고 있는데 우리는 성령운동을 신학적으로 정리하고 변호해야할 책임이 있다.

서양의 신학은 그동안 성령에 대하여 등한시하고 무관심하였다. 그런데 기독교적 신학을 수립한 칼 바르트조차도 앞으로는 성령신학이 나와야 되겠다고 말하고 있으며 실제로 바르트 자신도 그의 교회교의학 IV/4 세례론에서 성령이 중심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성령론적 신학의 수립을 시도하기도 하였다.

셋째로, 복음주의 진영은 세계선교에 박차를 가하고 선교신학의 발전을 지속적으로 추구해야 할 것이다. 교회의 재[차적 사명은 선교에 있으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명령이다.

오늘날 중국을 비롯한 제3세계 국가들에서 서서히 복음의 문이 열리고 있으며 특별히 한국교회를 향해서 강력하게 손짓하고 있다. 한국교회는 복음의 '못자리'이다. 이 모를 옮겨다가 복음의 불모지에 옮겨 심는 복음의 모내기 작업이야말로 복음주의자들에게 맡겨진 최대의 과제요, 최고의 축복이라고 할 수 있다. **【목표】**